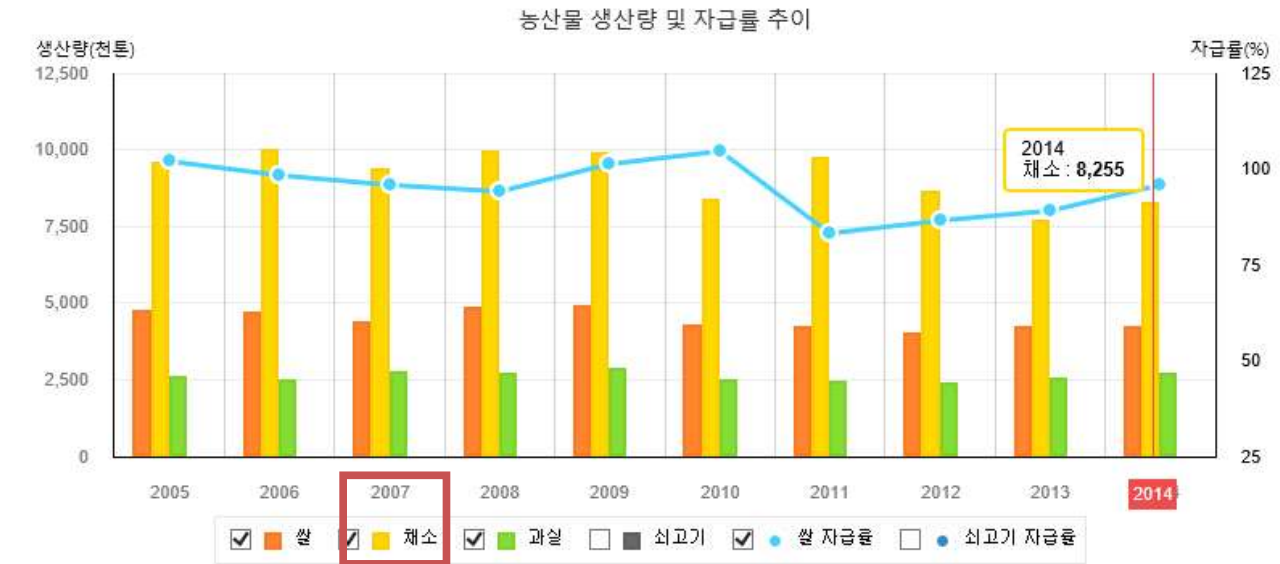


제2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

○ 농산물 생산량 및 식량자급률 현황



출처 :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, 작물통계,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실적 및 계획, 채소류 생산실적 등

그림 1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량 및 자급률 추이

-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2014년 전년 대비 3.6% (188천 ha) 감소하였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총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. 추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되면 밀집 재배가 불가피하여 환경적 요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. 또한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2005년 102%부터 2010년 104.5% 이후로는 수입 없이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. 2011년 83%까지 자급률이 감소하였음. 재배면적 감소, 품질 고급화 등 영향으로 곡물자급률 등 농업을 통한 자원 자급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. 또한 식량 자급률 감소 추세로 볼 때 수입 대응 품목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향후 우리나라 농가와 농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 (그림 1)

- 한편 2004년 4월,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FTA 발효 혹은 협상 대상국이 증가하고 있음. 최근 2016년 7월 15일에는 한-콜롬비아 FTA가 발효되기도 하였고, 한-중-일 FTA, 한-중미 FTA, 한-이스라엘 FTA 등이 현재 협상 중임. 중국과 중미의 상대적 저가 농산물들과 가격 경쟁 및 시장 개척이 요구되는 시기임. 이스라엘의 네타팜 (Netafim) 등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및 관련 고도 기술과 치열한 국제 경쟁이 예상됨. 이는 우리나라 농가의 생존 방향 및 활로가 수출 지향인 상황에서 대응 기술의 개발 및 차별화된 농산물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